

올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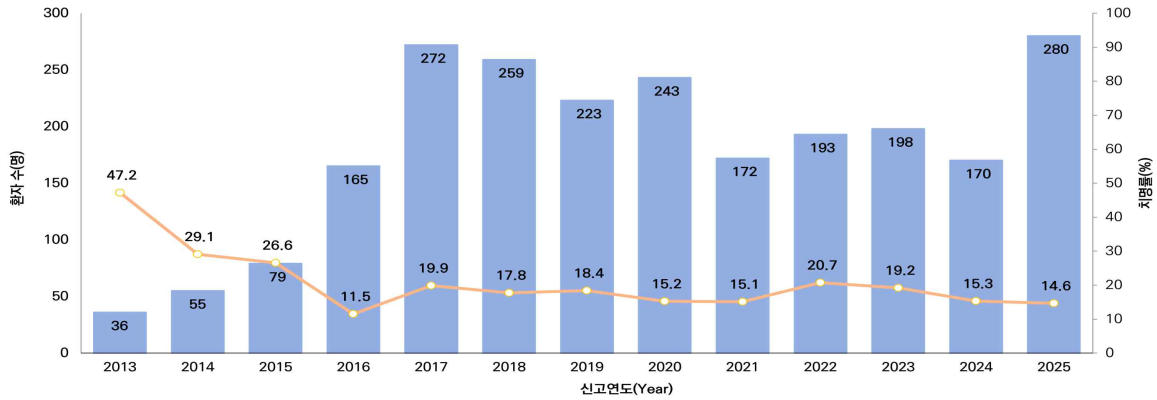
- '26년 4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 SFTS 누적 치명률은 18%로 높으나 치료제 및 백신이 없어 진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가 최선
- 논·밭 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설사, 근육통, 오한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첫 환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울주군 소재 텃밭에서 농작업 후 근육통, 발열(38.0℃), 오한, 식욕감소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SFTS 확인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미열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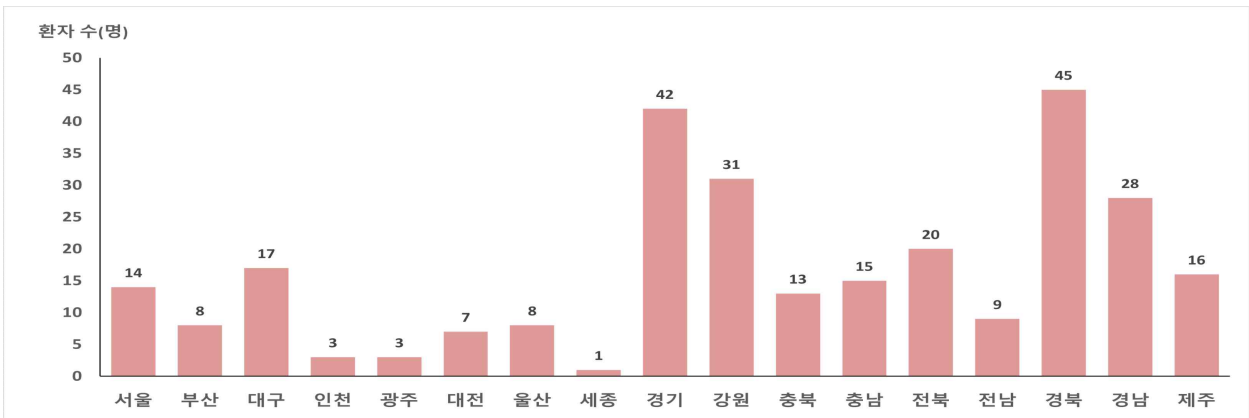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중증일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SFTS 환자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25년까지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422명이 사망하여 누적 치명률은 18.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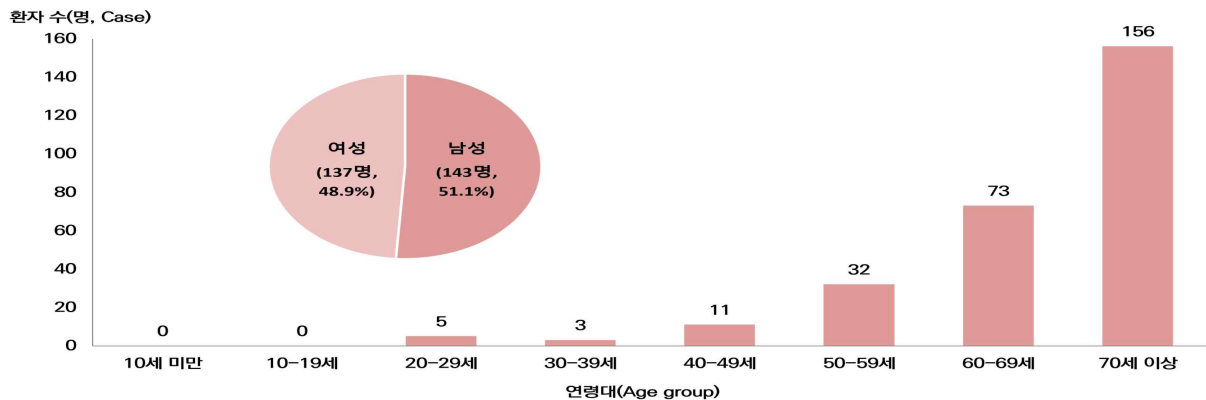


연도별 SFTS 환자 수 및 치명률

2025년 지역별 SFTS 환자 수는 경상북도 45명(16.1%), 경기도 42명(15.0%), 강원도 31명(11.1%)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1.1%(143명), 여성이 48.9%(137명)로 비슷하였으며, 60세 이상이 81.8%(229명)를 차지하였다. 주요 임상증상은 발열(87.5%), 오한(31.9%), 근육통(30.1%), 설사(29.4%) 순이었고, 감염 위험요인은 텃밭 작업·농업(과수업 포함)과 제초작업(성묘, 벌초 포함)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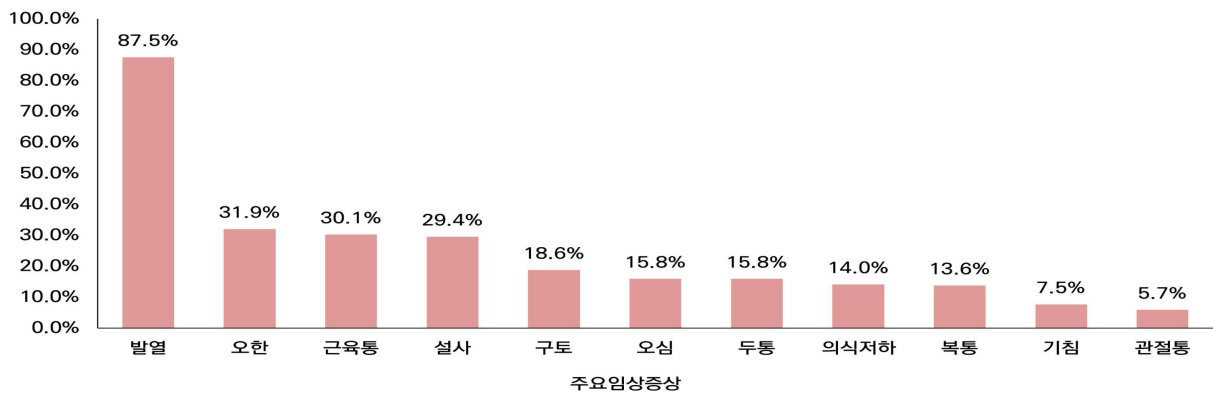


2025년 지역별 SFTS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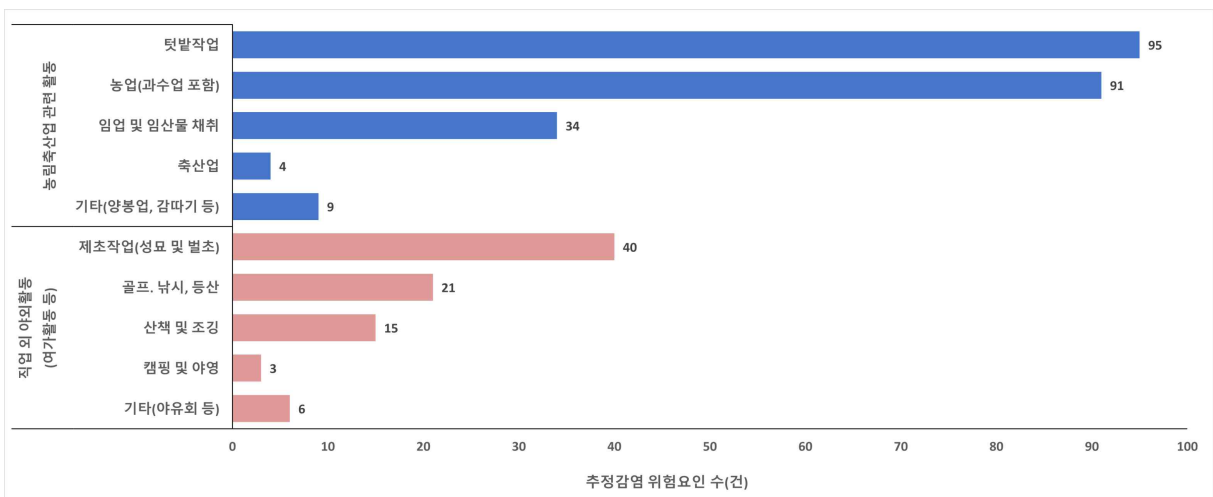


2025년 SFTS 환자 성·연령별 현황

유증상률(%)



2025년 SFTS 환자 임상증상(중복 응답 포함)



2025년 SFTS 감염 위험요인(중복 응답 포함)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SFTS 발생률이 높은 시기(4~11월)에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 할 경우 최근 2주 이내 농림축산업 관련 활동 및 야외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농작업 및 야외활동 이후 발생하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하여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소화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하기
*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붙임>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개요
 2. 국내 SFTS 환자 발생 현황
 3.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대국민용)
 4. SFTS 관련 질의응답(Q&A)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여상구	(043-719-7160)
		담당자	사 무 관	이현수	(043-719-7161)
담당 부서 <협조>	진단분석국 바이러스분석과	책임자	과 장	주 혁	(043-719-8190)
		담당자	연 구 관	이덕용	(043-719-8191)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51-260-3720)
		담당자	역학조사관	황지혜	(051-260-3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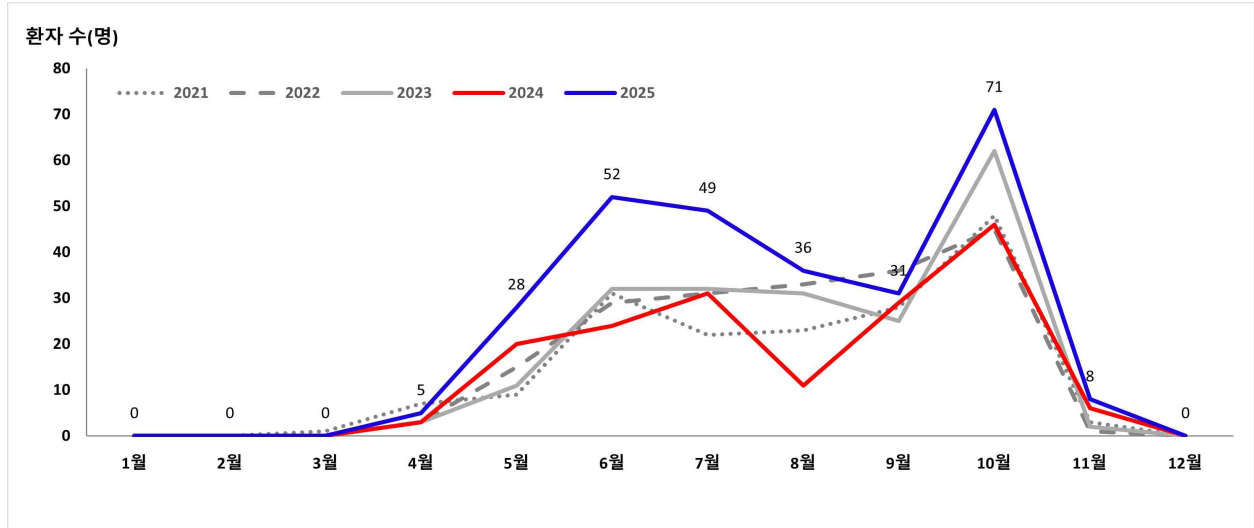
붙임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개요

구 분	내 용
정 의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i>bandavirus dabiense</i>) 감염에 의한 질환
질병 분류	□ 제3급 법정감염병
병 원 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i>Phenuiviridae</i> 과 <i>Bandavirus</i> 속에 속함)
매 개 체	□ 주요매개체: 작은소피참진드기(<i>Haemaphysalis longicornis</i>), 개피참진드기(<i>Haemaphysalis flava</i>), 몽뚝참진드기(<i>Amblyomma testudinarium</i>), 일본참진드기(<i>Ixodes nipponensis</i>) 등
감염 경로	□ 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사람 간 전파 보고: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잠 복 기	□ 5~14일
호 발 시기	□ 4~11월
호 발 대상	□ 주로 50대 이상
임상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증상은 고열(38°C이상)과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경련·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 주요 검사소견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 : AST, ALT, LDH, CK 상승
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혈액)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 명 륜	□ 12~47% 정도(2013~2025년 국내 누적치명률 18.0%)
치 료	□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 단,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될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예방 원칙 준수: 환자 접촉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및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 □ 접촉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예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돛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환자/감염동물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 주의

붙임 2 국내 SFTS 환자 발생 현황

□ (월별) SFTS 환자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하며, 10월에 가장 많음



<2021~2025년 SFTS 월별 발생 현황>

□ (연령별) SFTS 환자 대부분은 50세 이상에서, 사망자는 7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

<연도별·연령별 환자(사망자) 발생 수>

(단위: 명)

연도	연령별 환자(사망자) 발생 수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2,065 (381)	1(0)	5(0)	34(1)	42(0)	80(7)	378(30)	580(86)	945(257)
2013	36(17)	0(0)	0(0)	1(0)	0(0)	1(0)	6(0)	11(7)	17(10)
2014	55(16)	0(0)	0(0)	4(0)	1(0)	4(0)	12(3)	14(7)	20(6)
2015	79(21)	0(0)	2(0)	4(0)	3(0)	5(0)	11(2)	17(4)	37(15)
2016	165(19)	0(0)	0(0)	3(0)	2(0)	10(0)	38(1)	41(3)	71(15)
2017	272(54)	0(0)	2(0)	2(1)	5(0)	10(2)	65(7)	77(11)	111(33)
2018	259(46)	0(0)	1(0)	3(0)	4(0)	18(1)	50(1)	68(11)	115(33)
2019	223(41)	1(0)	0(0)	3(0)	3(0)	9(0)	41(4)	63(10)	103(27)
2020	243(37)	0(0)	0(0)	7(0)	11(0)	5(1)	46(2)	59(3)	115(31)
2021	172(26)	0(0)	0(0)	1(0)	3(0)	5(1)	32(2)	52(5)	79(18)
2022	193(40)	0(0)	0(0)	1(0)	4(0)	6(0)	32(4)	53(12)	97(24)
2023	198(38)	0(0)	0(0)	2(0)	3(0)	3(1)	28(2)	67(7)	95(28)
2024	170(26)	0(0)	0(0)	3(0)	3(0)	4(1)	17(2)	58(6)	85(17)
2025	280	0(0)	0(0)	5(0)	3(0)	11(0)	32(3)	73(8)	156(30)

붙임 3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대국민용)

진드기매개감염병!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예방 3 풀을 피하고



예방 4 털고, 씻고, 빨래하고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관리 2 물린흔적 찾아보고!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진드기매개감염병이란?

-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프프가무시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리쌍병 등
- 주로 텃밭작업 등 농작업을 하거나, 등산, 나물채취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있습니다.
- 발열, 근육통, 설사 등 감기 몸살 증상과 유사하므로 빠른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 진료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붙임 4 SFTS 관련 질의응답(Q&A)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인가요?

-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Q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매개 진드기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부착 대상이 수풀 속을 지나가면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에 붙어 흡혈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을 날아가 달라붙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접촉하게 됩니다.

Q3. 진드기에 물린다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모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Q4. 진드기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합니다.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드기를 제거 받거나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제거하고, 소독하도록 합니다. 또한 진드기에 물린 후 약 14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요?

- 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와 같은 질환과는 그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가족 등에서 SFTS 2차감염 사례가 있었으므로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가 현재 없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7.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풀숲이나 덩굴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